1. 시의 일상성

-송승언, 기계적 평화, 일상성에서 시작되는 소소한 상상이 즐거움, 미각은 과거를 환기할 수 있는, 기쁘게 만드는 강력한 감각. 침묵의 상황, 고요한 상황이 종말의 순간으로 변모.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여김, 일상의 반복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고 그것을 두려워함

-일상성: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된 도시라는 장소의 특수성, 반복의 권태, 그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는 경험, 견고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누구도 문제삼거나 고민하지 않음

-거시담론: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시, 민족의 슬픔, 조국 광복, 노동현실 극복의지, 일상성을 사치로 여김, 1980년대 이후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도시화 자체가 일상이 됨, 근대성과 마르크스, 견고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모더니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함, 도시가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부각됨, 따라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냄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모든 연이 ‘그리고’로 시작함, 기계적인 도시 생활에서의 노동의 압박감과 그에 함몰되버린 자기에 대한 괴로움, 서기가 나와 중첩되어 있음, 나도 사무실에서 같이 서 있음, 비극성에 대한 공감으로 동일하게 느끼는 것,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음, 거대한 일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숙명적이고 비관적이고 자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음,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음 거시와는 다르게, 거시담론이 일상성을 말하지 못하게 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됨

-기표와 기의: 본래 알고 있는 의미와 실제의 통념이 어긋나는 것, 기표는 단어의 형상, 기의는 사물의 속성, 의미, 표기가 속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음

-안현미, 화전 간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의심하게 하는 것이 일상성의 미덕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음**, 화전이라는 지역의 본래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됨, 꽃밭이 아님, 이름만 남아 있는 자리, 단어으 ㅣ의미과 실제가 다름, 나의 삶도 지나간 청춘의 비루한 삶만 현재로 남아 있음,이름과 남은 화전과 내 삶은 마찬가지이다.

-서효인, 일어서, 건담: 근대성, 일상성의 특징 중에 하나로, 윤리나 평화 같은 추상적인 가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앙상한 것으로 남게 됨,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 건담이 사랑하는 평화는 자의적인 평화임, 평화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음, 대형마트 노동자의 이야기, 휴먼은 고객, 마트 정비하고 청소하는 것, 일상성의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보여줌

2. 시 그리고 시적인 것

운율, 이미지, 시어, 상징성 모두 시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렇다면 시를 정의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시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서정주, 무슨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오이도): 어던 방식으로 삶에서의 욕망을 시를 읽으면서 얻을 수 있었나 이야기하기 위해 가져온 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으로도 앞으로 삶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날,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지는 답답한 상황에서 과거, 살만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됨, 이시의 화자도 그럴 때 고향을 떠올림, 안개와 같은 것으로 실체가 있는 공간은 아님, 청춘을 숨소리라는 감각으로 떠올림, 실체가 없는 것, 내가 넘어서야 하는 것을 마주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살아감, 기억 과거회상, 반추, 괴로운 순간을 견뎌내는 일, 위로받는 것을 꽃으로 문지른다고 표현, 바리공주에서 가져옴, 삶이 이렇게 괴로운데 그럼에도 존재하는 애틋함과 욕망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도달하고 싶은 길을 무엇인가 고민한 시, 용기 내는 이유

-시적 자질이라 기대되는 것들: 시적인 상상력, 서정성, 주관성, 상징, 비유, 리듬, 이미지, 암기해서 배운 것

-오규원, 프란츠 카프카: 일반적인 시의 형태, 배치와 다름, 일종의 메뉴판 형식을 차용해 옴,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 물품에 가깝게 여겨짐, 시인을 소비하는 상황 비판

-시적인 것에서 기대되는, 서정의 본질,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함민복, 섬: 바다야말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개채로서의 섬을 발견한 주체는 바다야말로 가능성을 가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음,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시를 통해 보여줌, 경험했던 깨달음으로서의 섬

-문무학, 섬: 언어파생, 유희에서 섬을 발견, 섬의 형상과 섬을 겹쳐봄

다양하게 발현되는 개인의 정서를 읽는 것을 서정이라고 기대함

-황지우, 벽1: 말 그대로 벽보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벽보의 역할을 배신하기 때문에 시라고 부름, 벽보, 명령의 기능 수행하지 못함, 날짜를 보면 운동권 색출, 군사정권 연상하게 함,

-본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의미 정보를 상실했을 때 미적 정보가 발생

이 시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시라는 것에 배반하는 시를 살펴봄

그렇다면 시를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할까

-시는 행들이 어디서 끝나야 하는지를 작가가 결정하는 허구적이며 언어가 창의적인 도덕적 진술이다. 도덕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와 경험에 대한 질적이거나 평가적인 견해를 가리킨다. 여기서 경험이란 특정 각도에서 고려되는 인간 경험 전체를 가리킨다.

-신경림, 갈대: 갈대라는 객체를 자신의 경험과 평가를 통해 발견함, 갈대를 인간 자체로 생각, 내면에서 흔들림이 온다. 삶에 대한 평가, 인식, 가치를 말함, 삶은 감내하고 참는 일이다.

-이소호, 좁고 보다 비좁고 다소 간략하게, 지극한 효심의 노래: 일반적인 시의 형태와 다름, 이를 통해 시적인 것은 변화함, 정전을 통해 보존되기도 하지만 변화하기도 함, 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시로 변모하기도 함

-낯설게 하기: 쉬클롭스키가 기법으로서의 예술에서, 낯설게 하기 기법은 대상에서 지각의 자동화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는 지연되고 뒤틀린 말이다. 사물을 낯설게 하고 형식을 어렵게 하여, 지각을 힘들게 하고 지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기법이다. 이 제동과 지연을 통해 인식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황인찬, 거주자: 표면적으로 나는 그를 기다리는 중이다. 까마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음, 사물의 이름을 먼저 배워서 상상과 어긋남, 자신 있게 까마귀라고 대답함, 다른 것을 여전히 까마귀라는 이름으로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게 놀라움, 침묵, 희박함, 투명함, 새로운 존재의 도달로 침묵이 깨지고 말을 하게 됨, 매우 낯섦을 느낀다.

-진은영,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개인의 언어 잘 표현, 익숙한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모호성의 가치: 윌리엄 엠프슨이 말한 시적 가치,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다의성 존중, 시어는 한 낱말을 통해 가능한 많은 느낌과 의미를 환기시키는 함축적, 내포적 언어이며 시어가 내장하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모호성이 발생한다. 또한 모호성은 시어가 매우 개인적인 언어이며 구체적인 언어라는 데서도 발생한다. 시는 산문에 비해 의미의 전달보다 언어 자체의 뉘앙스와 미감을 존중한다. 시는 요약될 수 없다.

-나희덕, 어둠이 아직: 모호성에 의해 즐거움이 느껴지기도 함, 알 수 없는 것을 달콤하다, 다행이라고 표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감각과 감성이 빈곤해짐, 모르기 때문에 떨림이 있고,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한다.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시에 대한 나의 사유가 아직 모호하지만 이는 무한대의 혼돈에의 접근을 위한 도구로 유용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어룩 서이 없다. 여태까지 자유의 서술은 자유의 이행을 하지 못했다. 모험은 자유의 이행이다. 이 세계가 자유를 보유하는 한 거기에 따르는 혼란은 허용되어야 한다. 모호성은 자유와 자유가 주는 혼돈에 있고, 혼돈이 경직된 사회에 저항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

아름답다 이상적이다 지향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가?

-김민정, 멀리 개 짖는 소리 들리더니: 그로테스크한 감각, 신체를 표현하는데 사용, 새로운 시도가 시적으로 정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한 것들을 미적 감각으로 전환시키는 것, 불가해한 불가시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됨

3. 근대의 문학 제도

동인지, 현상문예를 거쳐 단독 시집 발간에 이르기까지 근대의 문학 제도에 맞춰 ‘시인’이라는 인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핀다.

-김성대, 소년감별소 : 계속해서 해석을 지연,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고민함, 이것이 모호성이다. 모호성을 잘 보여줌, 지시어로 이루어진 세계, 그 밖에 있는 잉여를 만들어냄, 지시어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부정됨, 나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의 고통, 남의 정의를 부정하고 싶음, 모호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시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져온 시

-등단과 신춘문예 연관어 분석: 심사위원이 기대하는 것 충족시키는 것이 등단하는 과정, 시대와 무관하지 않음

-강우근, 단순하지 않은 마음: 일상적인 풍경과 그 사이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사이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상황, 빈자리를 계속해서 채워가는 삶을 지나가는 화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ㅇ르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살아감.

-코로나 시대 투영한 시어 돋보여:

젊은이들의 일상과 세태, 디테일한 묘사가 산문과의 경계를 묻게 함, 시는일상성 현실성과 무관하지 않다.

돌발적이고 바뀌고 달라지며 충돌하고 흩어지는 일상이 우리 존재의 본모습이라고 말한다. 정공법으로 개진해가는 뚝심, 파편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시, 언제든지 전복 가능한 것들로 우리 삶의 위기감 불안감을 잘 보여줌, 직설적인 표현

-현대조선명시선(현대조선시략사), 서정주의 시사구성, 온문사, 1950

1. 초창기, 개화계몽기: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초의 신체시 새로운 형식에 새로운 내용

2. 낭만파전기,: 목가풍의 전원주의, 휘트먼적 의지로 발전시킨 주요한 7.5조의 형식에 낭만성을 갖춘 김억, 감상의 일면만을 칠오조 등의 고식적인 그릇에 담기에 만족, 김억 축소시켜서 설명

3. 낭만파후기, 백조파 전후: 동인지 중심으로 설명

4. 프롤레타리아예맹파와 그 경향파: 백조 출신 박영희와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김기진과 임화

문예운동이나 집단 같은 매체를 발간, 조벽암, 윤곤강 역시 경향파에 속함, 엄청나 수에 비해 발군의 작품이 없는 것은 이념 때문이라 지적

5. 순수시파: 선명한 색채감각의 정지용을 위시해 정인보, 변영로, 박용철, 음악적 리듬과 정서전달에 치중한 김영랑, 신석정, 이하윤이 참여한 순수시동인지 시문학을 바탕으로 이들을 순수시파로 나눔, 시를 쓸 줄 모르는 이 나라 시단에 한 개의 시적 표현도의 노력의 아름다운 결과 내재한다고 높게 평가

6. 주지파와 초현실파: 김기림과 주지주의(파편화된 것들 적극적으로 인용), 잠재의식과 내심의 독백과 같은 것을 바탕에 둔 초현실파에 이상

7. 인생파: 오장환과 김달진, 서정주 참여한 시인부락, 정지용 등 다수 포함- 자신의 시문학사 위치에 대한 욕망 보임, 다른 많은 시인들을 약소화시킴, 동인지 중심으로 시사를 해석한 것을 유효하게 봐야 하는가, 이 방향으로 시인을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가?

8. 자연파: 문장지에서 데뷔한 박목월, 박두진, 조지춘을 지칭

-조선시인선집, 조선통신중학관, 1926: 시인들의 자선작품을 원칙으로 수록, 작품 목록에 일관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1920년 전후의 문예 동인지: 창조-폐허-장미촌-백조-금성-영대, 개벽, 조선문단

-이장희, 하일소경: 여름 나는 새악시 관찰, 20년대의 상을 섬세하게 잘 보여줌

동인지 중심의 시인 정리는 1920년대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음, 그 이후에는 등단 제도가 달라지고 문집 활동이 뜻이 맞아서 만들게 되는 게 아님

-매일신보에 실린 현상모집 광고 1919: 신문학의 발달을 조장하며 문예의 취미를 일반에 보급케하기 위해, 지면의 일부를 공개하여 독자에게 제공, 단편소설, 시조, 신체시, 일기급기행기타수필등 소품 문예, 갑,을,병으로 이원~오십전 증정 현상문예 원고를 보냄

-매신문단에 기고한 노자영의 시, 여기에서 당선돼서 등단하게 됨, 기존의 문집은 문학적인 자각이 있었던 인물이 참여해서 전문적인 작가층이었지만 이제부터 일반적인 민중이 문학참여하게 됨, 글을 쓰고자 하는 욕망을 상금을 통해 이끌어냄, 문학청년들의 시험장이 됨, 매주 한 번씩 발표, 새로운 시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

--------------------------------------------------------------------------------------------------------------

현대시의 정전은 공동체의 인정으로 이뤄진게 아니라 특정한 선자가 고른 것, 문학적인 상을 충족시키느 것들이 등단됨

-신춘독자문예대모집: 서민적 문학시대/문학적 취미를 일반으로 보급하게 하며 신시대의 신진작가를 환영하기 위해. 문예는 인생생활에 확평한 근거를 두어, 사상향상과 생활계발에도 다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 문학은 일부의 수단이 아니라 전인류의 보통적 문예가 되어야한다. 문학적 취미를 증진케 하며 독자의 창작적 재능을 숙연케 하려 한다. 작가로서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을 것이란 목표 분명히 함, 사상향상,

-개벽과 조선문단의 등단제도: 선자 위주의 추천제, 신경향파, 카프 주도 1920년대 이후 문학 잡지 종합지 영향력이 컸다. -> 개벽, 새로운 방식의 근대의 역량을 어덯게 발휘할 것인가 무엇을 계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 잡지, 매신문단과 다르게 현상문예 4번 실시하는데 개벽이 기치와 연관된 작품을 뽑았다고 의심됨, 주제가 있었다는 짐작, 원하는 문학상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음, 창작 방식과 문학 작품 구체적 언급 안 함

-김창술, 대도행, 신춘독자문예대모집 당선작, 개벽, 1925: 노동하지 않는 자들,문명읭 혜택을 받은 자들을 노동자들과 대비, 노동자들에게서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평등을 모르고 불평등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를 알려주겠다.

- 새로운 방식의 문학을 작가 창출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종합지 개벽에서 현상모집이 새로운 작가 창출이 효과적인가, 도전 많이 안 함

-조선문단, 이광수 중심 선자 위추 추천제, 선자 역량 강조함, 기고 많이 됨, 최남선이 주요 선자였음, 대가들의 권위에 기대 인기와 명망 얻음, 창간호부터 계속해서 모집해서 발표, 원하는 문학 상 구체적으로 드러냄, 어덯게 창작하는지 무엇이 좋은 글인지 언급함,

-주요한,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 우리말의 미를 표현하는 것이 신시운동의 둘째 목표, 과거에 조선말의 미를 표현한 조선 노래는 없었다. 한문 조의 노예가 되어 조선말의 근본미 잃음, 오늘날 신시가 장차 조선말의 진정한 미를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신시가 예술의 형식으로 조선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개벽은 대중적인 문학, 사상으로서의 문학을 원하지만 조선문단은 부르주아적인 문학, 근대적인 감상적인 문학 원함, 기존의 정형적인 문학 부정, 가이드라인, 작법 계속해서 만들어냄, 자유시란 어떤 것이ㅓ야 하나, 민족적인 정서 표현해야함, 단순하게솔직하게 쓰는 것이 더 좋다. 형용사 남용 비판, 교육적인 목적도 동시에 수용하며너 선자로서 권위, 자기들의 지향점 공고하게 만드려고 노력

-문장: 선자의 영향력 엄청남, 1930년대 후반, 정지용, 신인추천제로 선자 권력, 양주동, 창간호부터 춫천제 강조, 3회 추천받아야 본격적으로 작가 대우,

- 인문평론: 여러 담론 이론으로 무장한 ㄴ문예종합지

-조지훈, 고풍의상: 문장의 신인추천제에 가장 먼저 당선된 것은 조지훈의 고풍의상, 김종한의 귀로,황민의 학이다. 문단의 지향점 잘 보여줌

- 문장은 , 정지용의 지향은 전통중심주의 동양미, 고전중심주의였음 30년대 일상과 동떨어짐, 전통적인 미의식, 지금 현실이라기보다 과거 고전에 대한 미감

-문장에서 정지용의 지도와 조지훈의 회고:

회고적 에스프리는 애초에 각소고적에 날조한 것이 아니다. 자연과 인공의 극치일가하다.

당시의 선자 지용은 언어의 생략과 시에 연치를 보이라는 충고

서구적 영향의 시를 몇 차례 보냈더니 시적 방황이 참담하니 당분간 쉬어라

-문장의 추천제를 통해 문단에 진입한 이들: 김종한, 이한직, 박두진, 박남수, 조지훈, 박목월

김종한: 우리가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상성은 산문에서도 가능하지는 않다. 예술관이나 세계관을

적은 대상 중에 우주적인 정신으로서 감수한다. 정지용이 더 잘 보여준다.

이한직: 예술이란 형태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기한 작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 김기림과 기상도 결과물을 예술로 보지 않음, 번잡하다고 봄, 선자의 영향력 아주 큼

-김기림, 기상도 연작 시민행렬: 배치가 파편화됨,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예, 주변 풍경과 태풍에 휩쓸리는 것 그림, 사물이 혼종되어 있음,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됨, 끊임없이 착취되고 차별하는 모습과 현실을 목도하지 못하고 서구적인 문화가 미래를 낙관하는 모습과 대조, 고전지향과 대조적,

- 조선일보 신춘문예: 상금 100원~50원, 신문은 기존 독자 확대시키고 독자들의 충성도 높이고 신문의 문예적 권위와 연관, 선자에 김기림, 임화, 정지용 등 있었음, 처음에는 무조건 1등 뽑다가 나중에는 빼어난 것만 뽑기로 바꿈, 김유정, 백석 등이 당선됨, 등단한 작가를 일회적으로 소비하지 않음

-백석, 여우난곬족; 걸작을 뽑고자 하는 욕망이 성공했음, 자매지(조광) 등에서 지면을 확보하기도 함

매체의 지향점과 부합되는 걸 뽑았고, 선자의 취향, 문단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가 되기도 함

4. 화자와 주체

시를 단일한 자아의 일인칭 독백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 단일한 화자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수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새로운 문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인지를 만들던 시기도 있었지만 요즘 등단이라는 정형화된 제도로 인해 선자가 추구하는 글쓰기와 접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신춘문예도 그렇고 시는 지금 여기 현실에 대한 해석을 노래한다는 것을 잘 보여줌

-최정례, 빵집이 다섯 개 있는 동네: 시는 실질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빵집을 자주 가는데 그 이유는 빵의 속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빵을 사는 목적이 원래 빵을 사려는 목적과 다름, 필요가 아니라 넘치는 풍요 사이에서 이성적인 판다니 아니라 무의식으로 소비를 함, 종교가 소비 전력과 다르지 않음, 숭고한 미덕과 목적과 다름, 광고전략과 종교권하는 방식이 마찬가지임, 분주하게 소비 반복함, -사다와 살다: 소비를 하지 않고현대사회 살아나갈 수 없다. 사야 할 상황이 아니어도 사야만 하는, 것 살아나가는 것과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시적 화자: 시는 대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제됨, 언술이란 일정한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태도를 표명하는 언어 행위, 언어를 현실화하는 것이 언술, 시란 어던 세계에 관한 시인의 의사 표명으로 언술의 한 양식이다. 시는 실용적 차원의 언술과 달리 정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지만 언술이기 때문에 시 속에는 시의 화자가 있다.

시 속의 나는 허구 속의 존재이며 창조적 공간인 작품 속의 나이다. 그러므로 객관화된 나이며 화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형식화된 인간으로서의 나이다. 개별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형식화된 방식으로 정제시키는 것이 시이므로, 하나의 유형으로서의 감정으로 창작된 것이 화자이다. 시 속의 나는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는 자아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정서를 드러내는 유형적, 개별적 존재로 나이다. 비형식적인 무질서한 현실 속의 나와 달리 의식화된 정서를 작품 속에서 유형화된 형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정서는 형식화된 것이다.

김소월, 개여울 :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적 화자는 이별을 하고 개여울에 앉아 있는 여성, 시적 청자는 이별을 한 상대방, 그러나 관찰자가 화자고 청자는 개여울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편견처럼 김소월의 시적 화자는 언제나 여성적 어조라고 단정지어 옴

-시적 화자가 시인의 대리인으로 해석되는 문제

김소월, 첫치마, 한용운 님의 침묵: 언제나 여성적인 어조, 여성 화자라고 단정짓고 님이나 상대방은 언제나 조국, 이상적인 가치 등으로 단정짓기 쉬움, 이러면 언제나 한 가지의 단정적인, 편파적인 해석밖에 낳을 수 없음

오규원, 이 시대의 죽음 또는 우화: 시적 화자가 한 인물일 필요는 없음, 표면적으로 드러난 화자는 ‘죽음’, 관념 자체를 의인화해서 화자로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속성과 이 시에서 드러난 죽음의 형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헷갈림, 일상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미루고 피하고 고민하기보다 생각하기를 멈추는 존재들, 일상적인 사람, 우리를 내포하고 있음, 좀비처럼 사유가 아니라 관습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모습이 삶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죽음으로 표현, 해석적 측면에서 이런 삶 자체가 죽음과 같다는 하나의 우화가 됨

시적 화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거나 암기하는 것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시인(함축적)>화자(현상적 청자)>독자(함축적): 당시 지배적 사상, 어휘를 완벽하게 알 수 없음, 시어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이해하는 존재라고 가정하지만, 화자를 전제하는 것, 독자를 예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백석, 국수 : 백석 시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움, 함경도 방언 사용으로 어려움, 여기서 말하는 국수는 평양 냉면이라고 함, 국수먹는 광경, 마련되기까지, 만드는 분위기, 먹는 기억과 공간 녹여져 있음, 시어가 익숙하지 않아 온전하게 해석되지 않음, 풍경이나 문화가 익수갛지 않은 경우 화자의 감각과 정서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함

기존에 시를 해석하는 방식은, 담화, 담론이라는 양상에서 시를 해석하고, 그랬을 때 시에는 화자와 청자가 있음, 이런 방식이 모든 시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은 현대의 무의식이나 개인의 파편화된 양상들이나 다층적이고 여러 명인 시적 화자를 가진 시를 읽을 때에는 통용되지 않음

-김수영, 절망: 시적 화자가 아예 보이지 않는 시를 담론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나?, 시적 화자가 존재하면 문제 생김, 시의 대상이 되는 관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시적 화자ㅏㄱ 거론하는 게 이 시의 의도를 해치기 때문, 해석은 온전하게 독자의 몫임, 재정의하고 문제제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합당한지 고민하는 것은 정의되는 단어가 아님, 그 관념으로서의 대상이 아니게 됨, 자체의 정의를 포획하는 다른 방식이 있음, 찰나의 다른 지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생긴다는 뜻

-시적 화자, 시적 자아라는 특정한 관점: 획일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화자임, 시를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특정한 관점임, 원근법 무시 – 원근법과 소실점, 2차원에서 3차원을 구획하기 위한 기술, 특정한 지점에 서 있어야 거리와 깊이 구현 가능, 자아가 존재하면 그 시를 바라보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전제하고 있음

-황지우, 뼈아픈 후회: 시적 화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 일정한 측면에서 세계를 자아화함, 세계를 떠돌면서 그것이 내 내면과 동일시되고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함, 80년대 대표 시인, 폐허는 가장 본질적인 자아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줌, 내가 스스로를 투신하면서 만들었던ㄱ ㅓㅅㄷ를의 결과가 폐허라고 함, 내가 가진 세계가 타인의 세계를 압도함, 오만한, 시적 자아가 타아를 훼손시켰을지언정 나의 훼손은 없음, 내면 자체는 피폐하고 과거의 아름다웠던 민주주의라는 정신들, 그것이 문학으로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사실상 빈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자신을 버리지 못함, 스스로가 변한다고 느끼는 지점의 결정적인 계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음, 한 번도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아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무도 사랑햅ㅗㄴ 적이 없다는 것, 자아, 화자는 스스로에 대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음, 자기 자신 계속해서 유지함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 화자라고 말할 만한 존재가 없음, 하나의 삶과 주제르 ㄹ염두에 두고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유기적인 형태로 만들었다고 생각되지 않음, 나는 철저하게 분리ㅗ디고 해체된 존재임, 여성으로도 남성으로도 실패하는 존재, 내 본래 속성을 벗고 싶어하지만, 황상과 지향은 받아들여지지 앟음, 관계맺고 연결되고 싶은 욕망은 타인들에게 계속해서 부정당함, 시코쿠라는 이름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름이지만 언제나 불려지지 못함, 이름을 부여받고싶어함, 무언가가 되지 못한 것, 언제나 실패함, 나의 신체가 그것을 막고 있음, 실패 자체로 완결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형임, 황지우에 비해 하나의완결된 화자를 볼 수 없음 세계와 경유해서 나를 만들어내지 못함, 무의식을 통해 열망과 실패를 보여준다고 해석 가능

-박형준, 빗소리 : 자아있고 자아 없고에 따라 다름, 나를 중심으로 ㅇ릭으면, 내가 기억하고 체험했던 것, 그 사람이 생각나는 밤이다라는 실패한 연애 떠올리는 것/ 빗소리를 의인화함, 실제 존재하다기보다 대상 자체에 대한 상상, 그 결과물은 어렴풋하지만 실재 잔재가 남음, 저 밤은 지난나릉ㄹ 의미함

-언술을 자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생기는 문제:

1시적 공간 전체가 일종의 진공상태가 된다.: 언제나 나의 내면만 비춤, 지금 여기의 현실을 말하지 못함

2대상의 실체성이 사라진다: 세계가 나를 변형시킨 것이라면 언제나 거울에 불과할 뿐,

3시의 다층적 차원이 사상되고 만다: 언어를 하나이ㅡ 언술로 다루면 온전하게 시인의 것으로 해서갛ㄹ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언어유희 설명 못 함

4타자와의 관계과 왜곡되므로 어조, 이미지, 율격, 반어, 등 시학의 여러 측면들이 불구화된다: 누군가의 목소릴 ㅗ해석하면 다른 측면에서 전달되는 것이 사라져버림, 어디에서 반어가 오는지 대상과의 관계르 ㄹ온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주체는 무엇인가:

주체는 단일한 목소리를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 발화가 만들어내는 수행적인 효과를 말한다.주체는 실체가 아니라 언술들의 구조화된 장에서 생겨나는, 말하는 것으로 가정된 지점이다. 시에서의 목소리는 대상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고, 가상의 지점이며, 감정을 흘러드는 귀결점이다. 자아가 아니다. 따라서 시는 자아와 세계의 동일시가 아니라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주체에 주목해야한다, 시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음, 대상과 대상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

-허수경, 나는 어느 날 죽은 이의 결혼식을 보러 갔습니다.: 화자 입장에서 보면 그로테스크함,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읭 ㅕㄴ관관계가 읽히지 않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결혼식임, 오랜 기간 동안 노래를 못했지만 결혼식을 본 이후 노래를 할 수 있게 됨, 죽은 이의 결혼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사람의 상황을 결혼식이라고 표현함, 신랑신부의 공고한 사랑을 봄, 실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소공동 상가에서 알 수 있음, 결혼식장을 나오고 나서 지난날의 과거와 매듭지음, 완벽하게 이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전에는 내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던 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제니, 요롱이는 말한다: 요롱이가 무엇인지 의미가 없음, 시가 가진 읽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보여 주는 것, 구체적인 특징으로 정의되지 않음,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임, 슬픔도 가볍게 읽힘, 피곤한 시 vs 경쾌한 시

-김행숙, 관리사무소: 그대로 읽으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한 것으로만 읽힘 vs 정전됐나고 우나? 우리가 완벽한 하나가 아님, 객관화된 타자가 당신이 됨, 누군가가되고, 당신들이 되고, 우리들이 되는, 일정한 지칭되는 사람이 없음 완벽한 거리가 없음, 정전을 단절이라고 하면 사고처럼 오는 무언가임, 우리 모두한테 단절은 언제나 올 수 있음, 대상을 온전히 볼 수 없는, 내가 가진 슬픔 변용되고 확장되기도 함, 연결되고 단절되는 사람의 시선을 관리사무소의 마이크에 비유, 시적 주체는 다양함, 새로운 상황들을 보여줌

5.

은유가 단순한 언어의 장식이나 첨가물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확인한다.

시적 비유와 상징

-기형도, 조치원: 한밤중의 기차, 화자와 동승자의대화, 낙향, 서울에서 미끄러졌기 때문, 주변의 풍경과 지난날의 기억을 비유, 지쳐 있는 모습, 한 개쯤의 외투=귀향, 겨울은 서울의 혹독한 삶,

-은유적인 사유 체계로 사고하는 일: 질병-결핵, 예술가의 병, 창백함, 각혈, 예민함, 메마른, 천재성을 발휘하는 코드처럼 인식, 은유에는 사유 체계가 전제되어 있음, 사물을 다른 이름으로 부름, 서로의 유사성 결합, 이것이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함, 에이즈, 우울증, 세금 폭탄,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남, 명품 교육, 소비와 교육이 동일시,

-기형도, 엄마 걱정: 표면적으로 제한적인 은유로 보이는 이윤, 하나씩 각각이 가진 은유를 부분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임, 1,2행이 전체 시를 은유로 보여줌, 열무처럼 해가 시듦, 야채가 숨이 죽은 것, 어머니 여전히 시장에 있음, 배추잎 같은 발소리,

-이정록, 얼음 도마: 제목이 힌트, 풍경 전체를 부엌의 풍경으로 확장시킴, 풍경을 비유로 만들어버림,

-은유: 덮어 쓰기-다른 이름으로 부름, 나란히 놓기-비교, 늘어놓기-병렬

-김춘수, 안과에서: 비문증, 덮어 씌우기

-백석, 초동일: 겨울의 풍경도 따듯하고 그리운 풍경이 됨, 나란히 놓기

-김종삼, 북치는 소년: 늘어 놓기, 하나의 대상을 느슨하게 결합하면서 특징을 공유함, 실제로 본 적이 없고 미디어에서만 본 것들,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것,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없는 시기에 온 크리스마스 카드, 아름다운 것, 실체감이 없고 아름다움만 존재하는 것들

-은유: 수평적, 대상과 대상, 겹치는 부분

제유: 수직적, 부분과 전체, 상위 개념과 하위개념, 포함관계

환유: 은유와 제유의 결합, 인접성, 연상의 자동화, 경제성, 외적 구조성, 사회적 관습

-이성선, 미시령 노을: 제유, 나뭇잎->우주

-나희덕, 흰 구름: 손이 인간, 노동자를 의미함, (제유), 손, 밥-맨몸, 맨밥>흰 구름, 여기저기 휘도는 것들 비유

-이성부, 아스팔트: 아스팔트-핏줄(은유), 눈, 입술 등 신체로 제유, 민중과 노동자로 제유

-임화, 양말 속의 편지: (우리 오빠와 화로)거북무늬 질화로, 오빠 상징하는 은유, 화젓가락만이 남음, 누이동생과 영남이 은유, 오빠와 동생의 종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유로 해석도 가능함, 신문지 냄새 누에 똥 냄새 노동자 신분 나타내는 것도 환유, 구두 소리를 통해 잡혀가는 거 떠올릴 수 있으므로 거대한 폭력에 대한 환유, 개인이 공동체로 확대된,ㄴ 누이동생와 아우는 제유로써 확대됨/ 기계를 내던지다를 파업으로 이해 하므로 환유, 탄압 징 박은 구두발로 표현한 거도 환유, 게집애가 노동자에 포함됨 제유

-오은, 말놀이 애드리브: 환유 속성 잘 보여줌, 연쇄, 자동화된 연상, 앞의 대상과 연결되어 해당되는 지명 계속해서 연결됨, 한국어이기 때문에 가능함

-상징이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로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포함하게 된다, 은유적인 매개를 끊고 그 자체로 독립하는 표상, 상징은 원관념을 지움으로써 은유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게 한다. 상징의 유형화는 필자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으나 창조성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 자신의 대상과 전언에 얼마나 생산적인 효과를 낳았는가 하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황동규, 풍장 1: 죽음 이후 시신을 은닉하는 것과 다르게 새가 뜯어 먹게 두는 방식, 독특한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도 살아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음,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 죽음 갑작스럽게 은닉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함, 삶의 연장선으로 죽음을 인식함, 삶에서 앞당겨진 가상의 죽음을 상상, 상징은 단순한 비유거나 상상인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삶의 방식을 다층적으로 진행해나가며 압축적인 형이상학적 상징으로 죽음을 풍장으로 표현

-김수영, vogue야 : 현란한고 황성적이고 아름다운 대중문화, 섹슈얼리즘, 물질적인 것, 미국 사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머나먼 문명이다. 대조되는 현실, 빈곤, 죽음의 표식과 같은 것들이 현실임, 제유적인 측면에서 대중 문화의 상징, 아메리칸 드림, 금기된 욕망을 보여 주기도 함, 몰랐던 것들을 보여 주면서 욕망하ㅔㄱ 함,

-알레고리란: 하나의 체계(알레고리 텍스트)가 다른 체계(원관념 텍스트)를 지시/비교할 때 나타난다.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대일이지만 알레고리는 일대일이다. 알레고리 원관념 텍스트의 의미는 대개 사회, 역사적 교훈의 의미를 갖는다. 상징이 전체적이고 이상적인 근원성을 추구한다면 알레고리는 파편적이고 현실적인 역사성을 추구한다. 상징이 비유에서 넘어서 개별적 형상을 만들어 냄, 언제나 바깥을 사유함, 역사성과 결부됨, 1980년데 알레고리는 항상 518임, 상징은 원관념 의미 ㅇ벗음, 알레고리는 바깥 텍스트가 항상 필요함

-최승자, 일찍이 나는: 이런 자기고백 본 적 없음, 저주받은 시 등이 떠오름, 현대성 시인은 저주받은 시인의 이미지, 나는 스스로 부정하면서 비하함, 나를 이미 죽어버린 무언가로 말함, 과거와 연결 없음, 내 스스로의 건강함도 없음, 상대방과의 결합이 없음, 소문으로서의 내가 될 뿐이다. 1980년대와 연결해서 보면, 광주, 나의 역사적 사건을 손쉽게 평가한 것에 대한 분노와 비판으로 읽혀짐

6. 자화상의 세계

언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자기고백, 자기부정, 연민과 같은 서정을 시에 담아낸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장소를 탐방한다.

-윤동주, 자상화: 미완된 느낌, 괴로움이 완결되지 않음, / 자화상: 괴로움이 스스로 화해한 완결성이 보임

-이상, 자화상: 자기 얼굴을 통해 지나갈 세월과 내력을 본다는 것, 스스로를 정의하는 일은 전통을 단절하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됨, 낡은 역사와 유전해 오는 것을 보지만 자랑스럽게 이어갈 만한 것은 아니다, 아무 기억도 유언되어 있찌 않으므로 의미가 없다. 죽음을 맞이하고 스스로를 확인함, 스스로에 대한 혐오 염증도 보임

-윤동주, 트루게네프의 언덕: 측은한 마음이 마음에 머무른다는 게 차이점이다. 동정할 만한 여유는 있지만 용기가 없다. 작위적인 상황이 아니라 줄 수 있는데도 안 줌, 타협과 절충은 사실 얄팍한 연민이 타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음, 이게 현실이다.어설픈 인류애도 동정하려는 것은 삶에 충실한 아이들의 태도와 대비됨, 얼마나 값어치 없고 모숩되는것인지 깨달음

-투르게네프, 거지: 인간성 발견, 극빈자 동정 형태, 가진 게 없은 상태에서마음으로 연민 전달,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긍정

-윤동주, 병원:

-종시: 생활의 풍경을 봐야 인생을 알 수 있다며 전차타고 문밖으로 나감, 종착점을 바꿔야 한다. 시대의 정거장은 뭐냐

-오장환, 화원: 경성의 어지러운 풍경, 30년대 정지용 김기림 이상, 서정주, 등 정지용의 애제자, 시인부락, 대로, 거미는 교통로, 번창하는 가게들 상징, 그를 누비는 사람들 풍경, 화려함, 군중들의 현란함, 교통사고, 사람 사이에서 군중들의 부딪힘을 상징하기도 함

-윤동주, 사랑스러운 추억: 누군가에 대한 소식, 사람을 기차가 온다고 표현, 경성에서의 기억

-이재유의 체포를 다룬 경성일보 기사: 오장환이 남만서방 만듦, 오장환의 헌사

-서정주, 화사: 군발거사, 스스로를 하찮고 뉘움침이 없는 스스로를 아름답게 표현, 뱀은 화자의 분신이기도 함, 징그럽지만 거기에서매료되는 미감이 있음, 원죄와 연결된 상징, 인간의 탄생에 연결된 죄악과 연결, 대비되는 것들이 동시에 있음, 뱀에 매료되고 있음, 약에 취한 것처럼, 붙잡고 싶어하는 아름다움, 혐오, 잡는 순간에 도취됨, 소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 날 살아있게 만듦, 시적 성취, 날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는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도취,